

난민 문제,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

김정빈 청소년 기자

난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난민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6,530만 명이 분쟁, 박해, 폭력,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 이웃 국가 혹은 바다를 건너 낯선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난민과 관련된 국제기구는 대표적으로 유엔 난민 기구가 있다. 유엔 난민 기구는 전 세계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로 제2차 세계 대전 종식 이후 발생한 100만 명 이상의 유럽 난민들을 돕기 위해 창설된 기구이다. 유엔 난민 기구는 난민에게 생활 물품과 쉼터를 제공하고 난민의 자발적 귀환을 돕는 활동을 한다.

우리 부모 세대까지는 난민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난민 문제는 더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를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 등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난민 문제는 난제로 떠올랐다.

한국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신청자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4.1%이다. 세계 190개국의 평균 난민 인정률인 29.9%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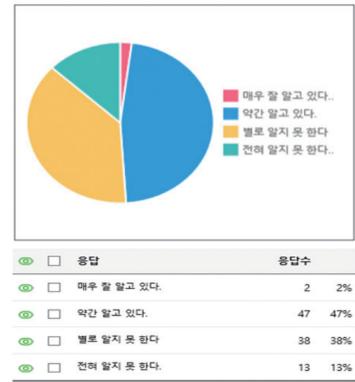
필자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이 궁금했고,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Q. 난민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00명 중 64%는 난민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36%는 별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했다.

Q. 난민과 관련된 기구(ex. 국제 연합 난민 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00명 중 49%는 난민과 관련된 기구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51%는 별로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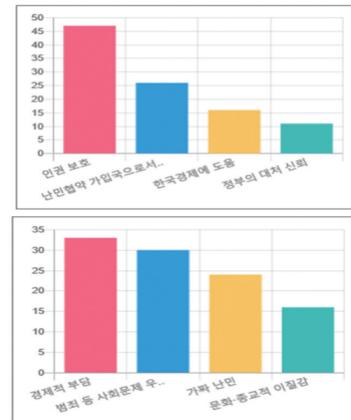
Q. 대한민국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00명 중 64%는 대한민국 난민 수용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

이었고, 36%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설문조사를 통해 꽤 많은 청소년들이 난민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과반이 넘는 청소년들이 난민과 관련된 기구에 대해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난민 수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난민 수용에 찬성할 이유는 "인권 보호"였다.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책임", "한국경제에 도움", "정부의 대처 신뢰"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입장은 어떻게? "경제적 부담", "범죄 등 사회문제 우려"가 가장 많은 청소년들의 선택을 받았고, "가족 난민", "문화·종교적 이질감"이 뒤를 이었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난민 문제는 점차 국제 문제가 되면서 동시에 국내 문제라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 사회, 정부 및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과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는 세계 시민 의식 함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따라서 우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난민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난민에 관련된 서적을 읽거나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등 난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우리들 생각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선입견, 개인의 자유 보장해야

많은 사람들은 머리카락 길이에 대해 여러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특히 여성분들이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 '실연당했냐' 혹은 '무슨 변심이 생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박시연
청소년 기자

그리고 최근에 2020 도쿄 올림픽 피 양궁 종목에서 '안산선수가 페미니스트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안산' 선수의 숏컷(짧은) 헤어스타일이었다. 안산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메달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남성 네티즌들로부터 제기될 정도였다고 한다. 몇몇 여성은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숏컷 헤어스타일을 원하기도 한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몇몇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길면 뭐가 힘들어? 그리고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머리카락이 길면 머리감는 것이 힘들고, 머리카락 길이가 짧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머리카락이 짧으면 그냥 그 자체로 즐거운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요즘에 남녀 상관없이 숏컷을 하거나 장발을 하는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물론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의 새로운 머리카락 시도는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시도 덕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 길이에 대한 선입견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다른 나라의 사례도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머리카락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했다. 그러나 2020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주에서 머리카락에 따른 편견과 차별을 막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자연 모발에 대한 존경스럽고 열린 세상 만들기(Creating a Respectful and

Open World for Natural Hair)'의 약자로 크라운 액트(CROWN Act)라고 불린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곱슬머리인 아프리카계 사람 중 일부가 스트레이트 파마(매직)를 하거나 가발을 써서 곱슬머리인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다. 괜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무슨 오해였을까. 미국에서는 곱슬머리인 상태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는 것이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미국 3개 주에서 어떤 머리 모양도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실시함에 따라 미국에서의 변화도 기대된다.

머리카락은 신체의 자유이다.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한다.

“생일을 자가격리로 보내 서러워”

10대의 자가격리 일기

군산지역의 10대 확진자가 급증하며 전수조사 하는 학교들이 많아졌다. 반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같은반 학생들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지난 15일 확진자 발생 이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청소년기자단의 일기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다. /편집자주

10월 18일(월) 자가격리 3일차 권해은

자가격을 앞서 한 친구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알 것 같다.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말로는 벌써 날씨 추워졌다고 하는데 나는 느낄 수 없어서 공감하지 못했다. 두꺼운 맨투맨 입고 집 앞 공원이라도 산책하고 싶은데, 집 밖은커녕 방에서 나갈 수조차 없으니 답답하다.

10월 19일(화) 자가격리 4일차 김나빈

처음에는 이게 진짜인가 싶고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적응하고 생활을 하게 됐다. 밥도 일일이 받아먹고, 가족들을 통화하며 마냥 불편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우쳤다. 생일을 자가격리로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지만 가족들이 케이크도 준비해줘서 가족이란 존재가 어마어마하단 것을 알았다. 소독을 일상화하고 마스크를 집에서도 내 한 몸처럼 생활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답답하고 불편할 걸 생각하니 자가격리가 끝나도 항상 노심초사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팠다. 내가 그동안 너무 경각심이 없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다. 격리가 끝난 이후에도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밖에서 마스크를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10월 18일(월) 자가격리 3일차 원세인

격리 3일차, 오늘부터 온라인클래스 수업이 시

작해서 다행인 것 같다. 할 일이 없으니 어찌까지도 너무 답답하고 우울했다. 방에서만 있어서 그랬던 것 같다. 가장 충격적인 건 3일만 방에 있었 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걱정이 되는 건 분리수거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쓴다 이번엔 알았다.



10월 19일(화) 자가격리 4일차 원세인

오늘은 격리 4일차, 조금 적응이 되었다. 방에만 있으니 공부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다. 우울함은 점점 커진다. 격리하면서 단점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스스로 걱정이 된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

10월 22일(금) 자가격리 7일차 원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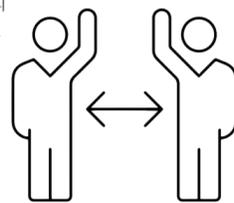
점점 적응이 되는 건가? 근데 잠은 많이지고 생활이 점점 불규칙해진다. 밥을 안먹게 되고 간식거리만 먼저 먹게 된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쓰레기가 가득 차오른다. 격리가 된 것이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가고 싶다

10월 23일(토) 자가격리 8일차 원세인

이젠 내가 사람인지 곰팡이 구분이 안될 정도다. 너무 나가고 싶다. 창문으로 봤을 때 뛰어노는 아이들만 봐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진다. 답답하고 힘들다. 공부해야 하는데 자침 너무 많아져서 큰일이다.

10월 24일(일) 자가격리 9일차 원세인

일요일이다. 교회가서 예배도 못 드린다는 사실에 너무 아쉽다. 줌(zoom)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배가 고프지만 답답하고 어지러운 마음에 밥을 안먹고 싶어진다. 나만 그런줄 알았는데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한다. 오늘은 우리 엄마 생신이다. 아무것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친구들도 너무 보고싶다.



황헌목의 문진신잡

메타버스(Metaverse), 관계 회복을 우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비대면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 문제의 답을 온라인 세계 구축에서 찾고 있는 듯 보인다. 보편화된 빠른 네트워크를 활용한 초연결 시대에 이는 어쩌면 예정될 수밖에 없는 수순이 아닌가 생각한다.

“메타버스”란 초월의 의미를 가진 'meta'와 세계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현실, 즉 오프라인 세계를 초월한 온라인 세계를 종합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며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라 텍스트를 이용한 커뮤니티에서부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현재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세계가 구축되어 왔다. VR(Virtual Reality), AR(Augment Reality) 등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던 가상현실 기술들은 점차 오프라인 깊숙이 개입할 정도의 크기로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esh'나 직방의 '메타폴리스' 같은 프로젝트들은 메타버스 내 사무실을 타이틀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며,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게임류의 메타버스는 이미 커다란 생태계가 형성되어 오프라인 전반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이 증거라 하겠다. 아직 메타버스 기술의 완성도는 오프라인 세계와 견줄 만큼 사실성을 주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필자가 언급했

던 O2O(Offline to Online) 시대의 자세에 대한 논의가 불과 2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비추어 봤을 때 사뭇 시대 변화 속도 가속화는 이 글을 접한 우리가 대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로 판단된다.

기술의 현재로 한발 더 들어가 보면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아바타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기존 싸이월드(메타버스 초기 소프트웨어로 비교됨)에서의 캐릭터와 차이점은 동적이라는 것이다. 메타버스에 접속해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고를 투명해준다. 덧붙여 3D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표정이나 행동 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사실감을 더해줄 수 있음은 아바타의 중요성을 과격해준다 하겠다. 메타버스는 허구가 아닌 또 다른 현실이며 그 안의 아바타 역시 허상이 아닌 또 다른 '나인'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오프라인 세계보다 좀 더 이상적일 수 있겠다. 자본주의 계급이나 다분한 외모지상주의 등 보이는 것으로 인한 부담은 덜하게 되니 말이다.

기술적 이야기를 뒤로 이에 야기될 문제점과 대응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네트워크만 있다면 시간, 장소 불문하고 어느 곳에서든 활동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이뤄진다.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세계에서보다 가벼운 만남이 빈번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의무와 책임감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지론이다. 실제 'N번방 사건'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은가?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더욱 중요한 부분은 다른 아닌 인성 부분이라 하겠다. 온라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언이설로 설득하거나 예절을 지키며 말하기가 아니라 잘 들어주기다. 잘 들어주기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이타심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이 거대해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도 업그레이드되지 않는다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제3인류"처럼 기술에 종속될지 모를 일이다. 업그레이드라 함은 기술의 습득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내면의 성찰을 의미한다. 다시 내면의 성찰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주장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올바른 판단을 위한 공공정의구현에 대한 사색과 휴익인간의 정신을 근본으로 주면인들과 공감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구상을 나누는 것이다.

/엠 (S/W 개발, 3D Printing) 대표